

조원희, 원발 돌려차기로 유스올림픽 금메달 획득

한국 태권도에 단비가 내렸다. 유스올림픽 세계 예선대회에서 5위로 본선에 진출한 조원희(풍생고)가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10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유스올림픽 이후 8년 만의 금메달이다.



남자 -63kg급 우승을 차지한 조원희.

태권도신문 제공

10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2018 유스올림픽' 셋째 날 경기에서 조원희가 반전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63kg급에 출전한 조원희는 첫 경기인 8강전에서 41점을 올리며 몸을 풀었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자바드 아가예브(JAVAD AGHAYEV)와 격돌했다. 자바드 아가예브는 8강전에서 세계 예선대회 1위 이란의 하메드 아스가리 마히아바디(HAMED AS GHARI MAHIABADI)를 꺾었다.

조원희는 2회전까지 자바드 아가예브에게 5대 9로 리드를 내주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3회전에서 원발 내려차기로 추격을 시작했고 종료 20초를 남겨두고 원발 돌려차기로 동점을 만들어내며 희망을 살렸다.

조원희는 종료 4초 전 자바드 아가예브의 원발 밀어차기를 주먹기인 원발 돌려차기로 맞바아치며 첫 리드를 잡았고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며 15대 13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태국의 나르퐁 뎀센(NARE UPONG THEPSEN).

조원희는 과감한 주먹공격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2회전서 나르퐁 뎀센의 뒷차기에 역전을 허용, 7대 9로 두 점차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조원희는 3회전서 원발 몸통 돌려차

기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재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종료를 바로 앞두고 머리 공격에 추격점을 내줬지만 원발 돌려차기로 4득점을 하며 결국 21대 1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선대회 5위 부진 씻고 정상 올라

조원희는 풍생중 시절부터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에 발탁, 풍생고로 진학하며 지난 1월 2018 유스올림픽 세계 예선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어 지난 4월 튀니지 합마

메트에서 열린 2018 유스올림픽 세계 예선대회에서 8강에 올라 간신히 본선행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이체급 우승 후보는 유스올림픽 세계 예선대회와 세계청소년선수권 1위에 오른 이란의 아스가리 마히아바디로 점쳐졌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원희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이번 유스올림픽에 5명을 출전시켜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권도신문=류효경 기자 hk4707@

태권도원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행사

태권도원 전담대서 모노레일 이용 눈길

9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행사가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이날 성화 봉송 행사는 정국현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과 박노신 사업본부장, 이도우 무주군태권도협회장 등이 참가했다.

특히, 특별 봉송 구간인 태권도원 전담대 일대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한 봉송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정국현 사무총장은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 봉송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경기는 태권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태권도신문=양택진 기자 winset75@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기념촬영하고 있다.

태권도신문 제공



2017년도 국기원 6차 임의이사회 장면.

태권도신문 제공

국기원 적폐 사태, 발전위원회 구성기로 의결

12월말까지 개혁 방안 무산되면 이사진 전원 사퇴

국기원 이사진이 올해 12월 말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 임원 선출 방안 및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일 제4차 국기원 임의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4월 방영된 MBC PD수첩 '추락한 태권도 성지,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국기원 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과 '예산 전용의 건'이 상정됐다.

특히, 수년간 심화된 국기원 적폐사태와 관련해 수수방관하고 있던 이사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모여졌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서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개혁위원회는 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3인을 위촉하

기로 했으며 이승환 국기원 원로회의 의장과 김영태 이사를 우선 위촉하고 외부 1인을 추가로 영입하기로 했으며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발전위원회 구성은 국기원 이사, 법조인, 국기원 노동조합, 교수, 언론인, 유관단체 등을 포함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원회는 국기원 이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 선출 방안 및 국기원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12월말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이날 임의이사회서 홍성천 이사장과 오현득 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는 이사 사임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김철오, 김태일 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신문=양택진 기자

www.sunmoon.ac.kr

네 안의 진짜를 깨워라!

선문대학교 RE-CREATE YOURSELF

선문대학교는 학생 안에 숨은 무한한 잠재력을 봅니다. 오늘보다 낫날 내일의 가능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대학. 새롭게 Re-create하는 선문대학교에서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국제사립대학 150여년 세한골

Re-create Yourself 선문대학교